

간몬 해협을 조수

간몬 해협은 전체 길이 27.7km 의 항로로 복잡하고 빠르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조류가 혼슈와 규슈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류가 복잡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은 가장 얇은 곳이 불과 12m 이며, 가장 좁은 하야토모노세토(하야토모 해협)의 폭은 65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류는 만조 때는 시속 9.4 노트(시속 17.4km), 간조 때는 시속 5 노트(시속 9.125km)로 해협을 통과합니다. (참고로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로 흐르는 구로시오 해류는 가장 빠를 때가 3 노트입니다.)

조수 방향의 변화

간몬 해협의 조류는 6 시간마다 동쪽, 서쪽,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 진기한 현상은 간몬 해협의 동쪽에 있는 스오나다 해역과 서쪽에 있는 히비키나다 해역의 간만 차가 원인입니다. 만조 때의 수심은 평균 수위보다 동쪽에서 1.8m, 서쪽에서 0.8m 상승합니다. 이 때문에 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듯이 흐릅니다. 간조 때의 수심은 평균 수위보다 동쪽에서 2m, 서쪽에서 0.7m 낮아져 흐름이 방향을 바꿉니다.

바다에 대한 도전

간몬 해협은 경험이 풍부한 도선사와 선장에게도 혹독한 시련이며, 항행하려면 고도의 항해술이 필요합니다. 시모노세키 쪽의 하야토모노세토에서는 조류를 거슬러 항행하는 배는 조류의 속도보다 4 노트 빠른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행 거대 화물선을 포함하여 많은 때는 하루에 1,000 척이나 되는 배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에서 모지로 가는 여객 페리는 조류를 잘 이용하면서 거대한 배를 조심하여 피해 가야 합니다.